LGD, 대형 LCD패널 시장 "선두"

2012년 2억1800만대로 3년 연속 1위 … 매출액 · 면적도 최고자리

LG디스플레이(대표 한상범)가 2012년 TV, 모니터, 노트북PC에 사용되는 대형 LCD(Liquid Crystal Display) 패널 시장에서 3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.

디스플레이서치의 1/4분기 보고서에 따르면, 최종 집계된 2012년 9.1인치 이상 대형 LCD패널 세계 출하량은 7억5419만대로 2011년 7억284만대에 비해 7.3% 신장했다.

특히, LG디스플레이가 2억1836만대로 시장점유율 29.0%로 1위를 기록해 2010년 26.0%, 2011년 27.9%에 이어 3년째 선두를 유지했다.

삼성디스플레이는 1억6348만대로 21.7%를 점유하며 2위를 기록했고, 타이완 CMI가 1억2837만대로 17.0%, AUO가 1억1991만대로 15.9%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.

LG디스플레이는 출하량 뿐만 아니라 매출액과 면적 기준으로도 1위를 차지해 대형 디스플레이 시장 최강자로서의 면모를 보였다.

LG디스플레이는 2012년 대형 LCD 패널 매출액이 222억7000만달러로 28.0%, 면적은 3560만평방미터로 27.4%를 기록했다.

삼성디스플레이가 매출액 199억8000만달러로 25.1%, 면적 3095만평방미터로 23.8%를 점유하며 각각 2위에 랭크됐다.

2012년 대형 LCD 패널 전체 매출액은 795억4000만달러로 2011년에 비해 6.8% 증가했으며, 총면적은 1억2985만평방미터로 15.4% 늘어났다.

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 양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치면 출하량·매출액·면적 모두 50%를 넘어 세계 대형 LCD 패널 시장에서 한국제품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.

디스플레이서치는 2013년에도 시장판도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.

한편, 삼성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용 OLED(Organic Light Emitting Diode) 패널 보급 확대에 힘입어 9인치 이하 중소형 디스플레이패널 시장에서 2012년까지 3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3/04/02>